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선정

전북도, 3D 카메라 활용 '비접촉식 양돈 모바일 체중 측정기' 제공 받아

전북도가 3억 원가량의 혁신제품을 무상으로 받아 도내 양돈농가에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조달청에서 실시한 '2021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비접촉식 돼지 체중 측정기를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시범 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 조달청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혁신제품의 시범 사용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해 구매 확산 등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다.

전북도가 받는 제품은 전주시 소재 (주)일베이션에서 만든 '비접촉식 양돈 모바일 체중 관리기'이다. 3D 카메라를 활용한 돼지 체중 측정기로, 기존의 스펀지 저울로 일일이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ICT 장비를 통해 접촉하지 않고 체중 측정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조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비접촉식 돼지 체중 측정기'를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시범 사용하고, 시범 사용 농가에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 말까지 정부 정책 방



비접촉식 양돈 모바일 체중 관리기.

향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양돈)'에 대한 이행 농가의 보상 목적으로 시범 사용 대상 농가 36호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사용을 마친 후 제품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 사용 양돈농가에 소유권을 이전 및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공개해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초기 판로확보 등 기업 성장을 돕고, 양돈농가에 신기술 축산장비 보급으로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舉兩得)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축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등 여러 분야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국제교류센터는 참가 학생, 운영진 및 심사위원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제6회 전라북도 청소년 모의유엔회의'를 지난 26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개최했다.

국제사회 관심·인식 제고로 글로벌 인재 양성

전북도 청소년 모의유엔회의 개최... 포스트 코로나시대 질병·디지털 현대사회 등 의제 토론

전북도국제교류센터는 참가 학생, 운영진 및 심사위원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제6회 전라북도 청소년 모의유엔회의'를 지난 26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개최했다.

전북도 청소년의 글로벌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전북도 청소년 모의유엔회의'는 청소년들의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과 글로벌 마인드 제고 및 토론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전북도국제교류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다.

이날 학생들은 '유엔 세계 유행병 대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과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권리 보장'을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는 두가지 의제를 가지고, 영어와 한국어

로 유엔의 의사 진행규칙과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열린 토론을 거쳐 '유행병 상황 시 빈곤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질병·자연재해 등 대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유엔 기구 설치 촉구'에 대한 결의안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법을 제정, 국가 간 원활한 협업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미있는 두가지 결의안을 도출했다.

심사위원들은 학생들의 열린 토론을 심사해 총 4개의 우수팀을 선정했다. 중국팀 영선중학교 송수연, 최예원 학생은 전북도지사상을, 브라질팀 자율화산중학교 송다은, 허하은 학생은

전북도의회 의장상, 쿠바팀 전주풍납중학교 박하연, 조은비 학생은 전북도 교육청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또한, 호주팀 지평선고등학교 문지영, 이은지 학생은 전북도국제교류센터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영호 전북도국제교류센터장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에서 개최되는 모의유엔회의 대회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며, 세계시민의식의 성숙과 국제적 시각을 가지는 과정에 큰 보람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및 대처방안을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해파리 출현 대비 예찰 강화

전북도가 도내 연안해역의 해파리 출현에 대비하기 위한 예찰 강화에 나선다. 지난 6월 23일 전남과 경남 및 제주해역에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발효되며, 도내 연안의 어민과 해수욕객을 현저하게 긴장케 한 바 있다.

도내 연안해역에 주로 출현하는 해파리는 '보름달물해파리'와 '노무라깃해파리' 2종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조업 시 어구 손실 등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노무라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유입되는 해파리로 독성이 강해 어업피해는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는 어업과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예찰반을 편성해 예찰을 강화하고, 해파리 출현 시 즉시 절단망 등 장비가 확보된 어선 등을 동원해 해파리를 제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 9일부터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해수욕객의 해파리 쓰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파리 정보와 응급처치 요령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삼락농정대상 후보자 접수

8월 27일까지 3개 분야

전북도가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묵묵히 일선에서 일해온 농어업인 등을 발굴·포상하기 위한 '제2회 전북도 삼락농정대상' 후보자를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수상분야는 보람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사는 농촌 3개 분야이며, 삼락농정 실현에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지대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마을,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 단체 및 관계자, 학계관계자 등을 선발해 시상할 계획이다.

단, 기존 도민의 장이나 지랑스런 전북인대상 수상자 및 현재 삼락농정 위원(172명)은 제외한다.

추천기간은 6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로 시·군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후보자를 접수하며, 각 시·군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

상으로 현직확인과 분야별 예비심사, 본 심사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11일 농어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부문별 조례로 정한 메달 및 상패를 수여하고,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영농·영어교육 감사 우선 위촉, 전북도 데미셀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면제 등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 삼락농정 대상은 도내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농어업인들에게 최고 영예를 부여하는 상"이라며 "지역에서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숨은 공적자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농촌관광 통합플랫폼' 구축한다

9월 구축 완료 예정... 지역별·계절별·테마별 농촌관광 코스 소개·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이 통합플랫폼을 통해 업고 공격적 마케팅에 나선다.

전북도는 농촌을 찾는 도시민에게 농촌체험·관광·숙박 등 체계적인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도 농촌관광 통합플랫폼'을 오는 9월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시민이 방문을 원하는 농촌관광시설을 검색하고, 예약을 위해 해당 농촌마을의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전화로 예약을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올해 초부터 전북도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협의회'는 도내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 '액티부키'와 손을 잡고, 농촌여행 전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북도는 오는 9월 '전북도 농촌관광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지역별·계절별·테마별 농촌관광 코스를 소개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워케이션(Workcation)이 주목됨에 따라,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에서 도시민이 휴식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통합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호일 도 농촌협력과장은 "이제 전북의 농촌관광은 코로나19로 지친 도 시민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대안의 공간이 됐다"며, "전북도 농촌마을의 숨은 자원을 도시민에게 알리고, 편안한 농촌여행이 되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시·군을 대표하는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육성하고, 뜻을 같이하는 주변 마을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마을간의 상생 유도를 위해 조성됐다. /유호상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서길용(1958. 11. 1.생 2020. 9. 11.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박성식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21년566 상속한정승인 사법보좌관 박성식
 - ▶피상속인: 망 서길용(1958. 11. 1.생 2020. 9. 11. 사망)
 - ▶취부주소: 전주시 덕진구 반태산1길 69, 203호 (인후동 1가)
 - ▶공고인: 서다연
 -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21. 6. 28.
 - ▶공고기간: 2021. 6. 29. ~ 2021. 8. 28.
 - ▶주소 (청구 대리인) 김준영
-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1길 9(덕진동1가 스카이빌루빌) 101호 한울법무사사무소